

[토론문 1] 의료서비스 부분

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충남도 추진방향

**단국대학교 창조다산링크사업단
이 정 만**

〈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충남도 추진방향〉

- 토론자: 이정만 교수
- 소속: 단국대 I-다산LINC+사업단
- 분야: 의료관광(충남의료관광 코디네이터양성 담당)

1. 충남의료관광 SWOT분석

강점(Strength)	약점(Weakness)
- 풍부한 해양, 산림, 문화관광자원 - 높은 온천브랜드 이미지 - 수도권 접근성 및 사통팔달 지리조건	- 지역 및 관련기관 낮은 관심도 - 취약한 의료관광 인프라 - 낮은 온천수치료 인식
기회(Opportunities)	위협(Threats)
- 해외방문객 증가 - 글로벌 의료관광수요증가 -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	- 심화되는 지자체 간 의료관광 경쟁 - 일본, 태국, 싱가포르등과 경쟁 - 경기침체 및 환율리스크

2. 충남 해외환자 유치현황

- 충남 2,164명(2016년 기준)유치 (전국 13위; 서울-경기-대구-부산-인천-대전-제주-경북-충북-전북-광주-강원-**충남** 순)
- 충남은 전국의료기관수에서 10위(제주, 충북, 강원은 충남보다 의료기관수가 적으나 해외환자 수가 많음)
- **충북**은 외국방문객수가 충남보다 적으나 해외환자 수는 많음(2015년 외국방문객 충남 172,000명, 충북 79,000명; 해외환자 충북 4,048유치)

3. 충남도 해외환자유치 사업 확대 필요성

- 도내 외국방문객 증가(2015 128,000명 - 2016 172,000명)
- 서산대산항과 중국 용인항간 국제여객선 취항
- 충남도와 중국 등 보건의료협약 체결
- 지역 의료기관의 확장(개인병의원 증가, 단국대 병원 2019 암센터 건립)
- 도내 고부가서비스산업육성(치료, 관광, 숙박, 쇼핑 등 융복합 신성장동력)
- ※ 2015년 외국방문객 평균 125만원지출, 해외환자 진료비 평균 225만원(외래 132만원, 입원 1,286만원)지출

4. 충청남도 의료관광활성화 방안

-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을(의료관광협의체 결성 등) 통한 발전방안 도출
- 지자체의 인프라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(최소 10년 투자)

